

#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활기 ↑

### 무주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도시 유희인력 농가일손으로 연계 활용

무주군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농가의 일손부족에 따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도·농 상생형 무주군로컬JOB센터(이하 무주군일자리센터) 운영사업(국비 3억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억 원)'을 추진해 도시 유희인력을 농가 일손으로 연계·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거점센터 운영(통합 일자리 정보DB구축, 고용센터와 연계한 선순환형 원스톱 일자리서비스 제공 등), △도농 상생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협력망 구축(협약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 문제 모두 일자리와 직결이 돼 있다"며 "도·농 상생에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는 높이고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지역에는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직자의 조기양성 정착에도 기여해 도농 간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농 상생형 무주군로컬JOB센터 운영사업'의 추진 주체는 무주군일자리센터로서 앞으로 △일자리 및 구인·구직 발굴, △농가 일자리 지원,



무주군일자리센터 취업상담 모습.

△구직활동 컨설팅,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간담회, △이동 상담소 운영, △농가 일자리DB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구인·구직에 최적화된 메뉴를 개발,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인근 도시지역과 인력수급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풀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일자리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무주군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산업체와 사업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알선, 일자리 정보 공유 등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농가 일자리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중된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에 문을 연 무주군일자리센터는 그동안 동행면접과 취업캠프 운영, 채용대행 등의 사업을 추진해 구인 4,234건, 구직 4,089건, 알선 3,993명, 취업 2,705건의 성과를 올리는 등 무주군내 구인·구직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또 전주고용노동센터 무주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실업급여 4,614건, 취업성공패키지 216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83건도 성사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무주군일자리센터 업무를 고도화시켜 무주지역 내 통합 일자리 서비스 기관으로 재도약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고원물 전 품목 30% 할인

### 오늘 오전 9시~밤 9시까지 진행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물 '진안고원물'이 22일 전 품목 30% 할인을 적용하는 2차 '화요타입 세일'로 소비자들을 찾아 나선다.

이번 이벤트는 '불타는 화요일 전 품목 30% 세일 이벤트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 품목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며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한 라이브커머스로 함께 진행한다.

진안고원물은 지난 15일 열린 1차 '화요타입 세일' 이벤트에서 당일 홍삼 클라겐 등 홍삼제품, 쌀과 잡곡, 사과 등의 농산물과 젓갈, 장류, 오미자청, 생강청과 도라지매주 등 120건이 넘는 판매를 올리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특히 22일 오후 2시에는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진안고원물 세 번째 라이브커머스가 열리며 대상 품목은 하늘마, 우추마로도 불리는 건강채소 '열매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쇼호스트 없이 마이산고원농원의 조은행 대표와 진안고원물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군청 로컬푸드팀장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해 열매마의 성분과 효능, 보관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열매마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의 시연 및 시음을 통해 홍보 및 판매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방송 중 열매마 구매자에게는 구매 인증 사은품으로 '열매마 1kg'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과수산업 육성 위한 과수지원 시범사업 추진

장수군이 올해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수분야 국비 시범사업으로는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1개소) ▲노지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5개소) ▲햇빛차단막 적용 조지원 일소파해 저감시범(1개소) 3가지 사업으로 총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미래지향적 생산시스템 적용으로 사과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축(이축) 수형 묘목을 직접 구입해 지주, 철선, 관수시설, 토양개량 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다축(이축) 수형 재배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해 새로운 과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노지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사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등 노지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토양수분센서를 활용해 작물 생육단계별 관수 관리 및 자동화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햇빛차단막 적용 노지과원 일소파해 저감사업은 고온,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노지과원의 일소파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주 시설 개선, 햇빛 차단막 시설설치 등을 지원한다.

과수지원 시범사업은 각 사업별로 신청·접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심의를 완료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농가가 필요한 농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모든 임신부에 자가검사키트 무료 지원

장수군은 관내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전파 확산으로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어려워지고 검사 시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의료고위험군인 임신부 36명에게 우선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18일 기준 관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 36명에게 전화 또는 문자 안내 후 우편 발송이나 본인 및 대리 수령으로 1인당 2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또한 미수령자 및 신규 등록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배부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접객실 입식으로 전환

무주군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접객실을 입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접객실은 1분향실(특실)과 2분향실(일반), 3분향실(일반) 등 3곳으로 식탁 총 58개와 의자 232개를 설치·완료했다. 이로써 1분향실에는 100석, 2분향실에는 64석, 3분향실에는 68석이 마련됐다.

무주군은 접객실 입식 전환 이외에도 장례식장 이용안내 시스템을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빈소안내 시스템과 연계(장례식장 이용 및 빈소현황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조문예절 개선 안내도 진행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더 맛집 선정 홍보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이 올해부터 무주의 독특한 무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숨어있는 맛집 발굴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내·외부 고객 선호하고 지역의 숨어있는 다채로운 맛을 찾아 군의 대표 맛집으로 홍보하기 위해 '2022년 무주 더(The) 맛집 선정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무주 더(The) 맛집' 6곳을 선정해 군 홈페이지, SNS 홍보를 통해 육성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소도 군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65%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업주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식사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세금 체납자는 제외)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 및 대표메뉴 설명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트 또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업소는 외식 전문 평가팀이 2회에 걸쳐 심사평가해 5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안전농산물 생산 위한 친환경자재 실증재배 한창

### 진안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로 '킹스베리' 병해충예방 실증재배 추진

진안군은 21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클로렐라와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기술을 지원받아 '킹스베리' 병해충 예방 실증재배 추진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킹스베리'는 대왕딸기로 불리며 남다른 크기와 맛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이다.

하지만 겨울철 딸기는 일조량부족, 저온 다습한 환경, 환기 부족으로 인한 곰팡이병 발생이 잦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매일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



삼, 카란자오일 등 식물추출물을 활용한 햇빛곰팡이병, 응애, 총채벌레 방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 배양한 클로렐라 처리로 흰가루병 예방 및 당도·경도·저장성 등을 향상시키는 재배기

술을 적용해 재배하고 있다.

킹스베리 품종은 35~100g의 딸기로 일반 딸기(선향) 품종의 두 배 이상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재배 실증이 잘 이뤄질 경우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온실을 활용한 작물재배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 실증재배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안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재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